

북한개발소식

02

2020 February

통권 172호

| 이달의 주제 |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February

CONTENTS

이달의 주제 :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기도



01

권두칼럼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기도



09

칼럼 1· 문성묵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

15
칼럼 2· 오일환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와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21
칼럼 3· 최경희
2020년 북한의 국가방향



27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1)



37
서평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
충성의 외화별'이라 불리는
북한노동자

39
북한 기도 제목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 해 한반도를 돌이켜 보면 평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로 시작했지만 아쉬움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북미대화는 별 소득이 없었고 한국이 제한했던 남북 교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및 엔진 실험으로 선을 넘넘을 듯 도발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왔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에게 올 한 해 한반도의 정세를 예측하고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일은 급변하는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기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 초 제시된 여러가지 정세 변화와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 선교적 관점에서의 예측 및 기도의 제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본 북한의 구상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는 정보가 제한적인 북한의 행보를 예측하는 일이 난제이다. 그러다보니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새해 첫날 발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어왔다. 정보가 부족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해의 구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은 독특하게도 신년사가 생략되었고, 대신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온 제 7기 제 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만이 발표되었다. 그 숨은 의도야 알기 어렵지만 30년만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수 일간 진행되고, 그 결과로 신년사를 대체하는 모양새는 이번 결과 발표가 평소에 비해 더 엄중하고 중요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번에 발표된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보면 먼저 ‘정면돌파’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 미

국이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면돌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북한은 기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의에 따른 핵실험 및 ICBM 실험 중지, 핵 실험장 폐기 등 전향적 조치에도 미국의 위협은 변함이 없었으며 “이제는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기존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가졌다고 표방한 셈이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그렇지만 그리 새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전의 병진정책(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과 유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의 제재 장기화 및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전략무기개발에 힘쓰겠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는 핵과 경제개발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약간의 경제적 이득 정도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북한이 언급하는 전략무기 보유 및 개발 역시 미사일 등 핵 투발수단 관련 무기로 볼 수 있다.

근 2여년간의 진행된 북미 대화에 대한 실망감과 과거로의 회기를 암시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예상롭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전원회의에 대해 북한은 중앙과 지방의 핵심 간부들을 모아 4일간이나 진행했다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그만큼 중요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번 회의 결과로 ‘정면돌파노선’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이동발사대에서 화성-15형을 세우고 있다.〉

과 미국과의 협상 무용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파기 등이 언급된 만큼 우리 측에서 새로운 안보 및 대북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쟁 위험이 높았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¹

북한의 군사도발 역시 우려된다. 분석에 따라서는 북한이 머지않아 강도높은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된 3월에 이를 명분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도발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최근 실험했던 새로운 고체연료 미사일이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이 유력한 것으로 보았다.² 또한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언급했던 코피작전과 같은 무력 동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점도 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기하는 모양세이지만 17년도때와 같이 연일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요란한 모습이 아닌 당분간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조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³ 미국이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추가 재제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도 어려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이 가중되고 협력관계인 중국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스로 성공한 북미간 정상 대화 채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강한 전략적 도발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보다는 위성로켓발사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조절한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3월 한미연합훈련 기점 도발 등의 분석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⁴ 근 시일내에 강도높은 도발을 실시하기보다는 일단 미국의 입장을 살피는 선에서 지켜보겠다는 복안을 암시하는 제스처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의 역할이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전망

이번 북한의 발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번 발표에 극단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발표 이후 미 정부의 반응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이란과 북한 등 2개의 핵 관련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하나라

1 정성장,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평가와 한반도 정세 전망”, 세종논평 2020-01, 세종연구소, 2020.01.02.

2 신범철, “북미관계 거친 파도앞에 놓인 한반도 안보”, 중앙일보, 2020.01.02.

3 전봉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본 2020년 북핵 문제 전망”, IFANS FOCUS 2020-1, 외교안보연구소, 2020.01.02.

4 연합뉴스, “북한, '3월 위기설'에 연일 발끈... '진짜 위기' 근원 될 수도”, 2020.01.11.



〈1월 7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도 해결하는 것에 희망적이나’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 (대북) 관여를 유지할 것이며, 지난 2018년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⁵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예상보다 높고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가 성과로 내세웠던 ICBM미사일 발사 중단이나 핵실험 중단을 재개할 경우 예상 외의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국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남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신경 쓰인다. 이전 신년사에는 남측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평창올림픽이 신년사에 직접 언급되었고 실제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북미대화의 물꼬를 텃던 18년도나, 남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했던 19년 신년사와는 다르게 올해는 남측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을 통한 채널 다변화가 거론된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미 관계가 남북관계와 동일한 방향으로 연동되어 움직일 것이라는 근거없는 희망을 내려놓고, 미국 의존이 아닌 외교 전선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접근,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반면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신범철은 북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역으로 활용하여 한미공조를 통해 대중국 설득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대화를 재개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⁷ 전문가 분석의 논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과 맥을 같이

5 연합뉴스, “폼페이오 ‘美, 金 비핵화 약속에 이를 대화에 여전히 희망적’”, 2020.01.08.

6 이관세, “북한의 ‘새로운 길’, “장기전을 대비한 정면돌파”” IFES현안진단 No.89 [2020-01],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20.01.01.

7 최강, 신범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이슈브리프 2020-01, 아산정책연구원, 2020.01.02.

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북한에 개인 자유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되는 등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실재화 될 수 있을지, 또 시행된다면 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

북한의 딜레마: 경제 문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경색 국면 장기화는 결국 대북 제재의 장기화를 뜻한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기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도 전체 내용 중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제재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분야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다만 많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긍정적이지 않다. 전에는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라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 위기 극복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경제 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절차·제도의 정비, 농업 및 공업분야의 과제 제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 등이 주로 이야기되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

제 일꾼들의 ‘타성, 폐단’을 강하게 질타하고 사회주의 상업 복원을 거론한 대목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위원장이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및 기관 기업소, 심지어 개인 단위의 자력갱생을 주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역할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는 서로 모순된 목표라고 보았다.⁸ 즉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자체 생존이라는 말은 결국 분권화를 의미함으로 중앙 통제 강화와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즉 각 단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활동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외관상으로는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정책적 방향은 유지하되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이나 시도는 철저히 막겠다는, 경제 일꾼들의 일탈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은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전부터 그랬듯 정말로 모든 희망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라기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의 강경책의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 당국은 강경한 군사적

8 양문수, “당중앙위 전원회의 경제분야 평가: ‘자력갱생’ 기초 하 국가경제운영의 새로운 판짜기 착수”, IFES현안진단 No.90 [2020-02],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20.01.02.

입장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살펴 다음 스텝을 구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길어질 줄다리기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 활동 개선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사건 이후에도 농업부분 비료공장 현지지도 등 대외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가는 점 등에서도 북한의 선택이 미국과의 막다른 대결을 표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대화를 상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선교 전망과 기도

아직 연 초이지만 각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비핵화 대화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가 제재 해제의 선결 조건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재 해제와 핵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시일 내에 양국이 합의점에 이르리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주선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썼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추진해온 북한과의 각종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다

양한 시도를 시험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그리고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강경론 속에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고, 미국도 북한의 강경입장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간의 원만한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국 측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여전함을 보여주며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임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을 우호적인 제스처로 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각국의 행보는 표면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비공식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간의 희망적 정황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한다. 북한은 올 한 해 대외적 변화 보다는 내부를 추스르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존엄’을 언급했다.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환경 필요를 위해)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경제 제재

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존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존엄으로 일컬어지는 절대적인 김씨 일가의 유일영도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지배 체계와 사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즉 현 지배 체계와 사상을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하고자 하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올 한 해 예측되는 한반도 정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교적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단시일내에 공식적인 루트로 북한에 접근하고 사역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남북교류나 NGO 활동 등을 통한 북한 주민 접촉 및 간접적인 현존의 선교 실천은 올 한 해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예상치 못한 극적인 협상 타결 등을 기대하며 계속 상황변화를 주시해보아야 하겠지만 2018년부터 이어진 정상 회담과 평화무드 때와는 달리 실무진 선에서 비공식적인 협상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단시일 내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적인 루트로의 선교 전망도 밝지는 않다. 북한의 내부단속 강화는 종교활동에 대한 추적 및 박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선교의 기착지 역할을 했던 주변국의 감시와 통제, 박해도 전에 비해 심해지고 있다. 또한 대북 제재에 따라 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를 추방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복음 사역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거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국경을 중심으로 인

적, 물질 왕래는 계속해서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북한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산업 개발 열중하고 있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편법을 활용해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촉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북한 선교 현장의 난관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먼저 국외 또는 세계 교회 및 기독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NGO 지원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몇 외국계 기독NGO들의 경우 유엔에 정식 허가를 받고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해외 단체 및 교회와의 연합 사역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 접근을 통한 현존의 선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해외 성도들도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간접적인 기도 여행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상황이해가 부족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는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루트 외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선교도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곧 우리의 기도제목이 되어야 한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각 국가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대외적으로 어려운 현장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의 안전과 사역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지혜로 선교의 기회를 찾고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이 문만 바라보며 멈춰 있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교 현장을 돕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기가 좋을 때, 환경이 조성될 때가 아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딤후 4:2)써야 할 일이라고 말씀

하신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적극적이고 준비된 일꾼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자. 비록 올 한 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경륜이 빛나는 때임을 믿는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일 하실 때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



〈2019 주빌리 기도큰모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2020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암울해 보인다. 우선, 우리가 기대해 왔던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전략무기 운운하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한 도발 의지를 천명했다. 2018년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해온 것과는 달리 이번 결정서에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미북협상 교착국면에서 나름 운신의 폭을 넓혀보겠다는 시도는 짝사랑에 그칠 공산이 높아 보인다. 북한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한미동맹은 뼈적 거리는 모습이 표출된다. 남북관계 발전을 두고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한미방위비 분담이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한국 참여 등에 대한 갈등으로 동맹은 이완되고 적전 분열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고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대화는 일단 재개되었지만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0년에는 안보와 연관된 일정들이 여럿 예정되어있다. 우선 한국의 총선이 4월이다. 미국의 대선은 12월이다. 일본에서는 7월에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북한은 올해 9월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이다. 또한,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정들은 향후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보려고 한다. 우선,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전략노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살펴본다. 이어서 이런 기초하에 남북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과연 어려운 북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진단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보 상

황이 북한선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제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 신전략노선으로 선포한 ‘정면 돌파전’의 전개 양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지난 연말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나흘 동안 개최했다. 금년 신년사도 생략한 채 전원회의의 결정서로 갈음했다. 결정서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은 “현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 돌파전을 벌일데 대한 혁명적 노선(약칭 정면돌파노선)”이다. 김정은은 작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에게 큰 실망을 하였다. 북한 핵시설 일부인 영변을 내어주고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전부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가 이를 거절한 것

이다. 김정은은 핵을 내려놓을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북핵 능력 일부만으로 핵심적인 제재를 모두 해제해준다면 나머지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를 잘 구슬리면 자신의 의도가 먹힐 것이라는 김정은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이후 그는 강경한 태도로 전환했다.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포문을 열었다. 시한은 연말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실험을 했으며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협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하였다.

이번 결정서의 배경은 미국과의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자기들은 비핵화를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도 (셀프)폐기했고, 동창리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1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해 총궐기에 나선 평양시 근로자들 사진을 게재했다.〉

사일 발사장도 (셀프)해체했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도 하지 않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 등 성의를 다했건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도 풀지 않고 한미연합연습도 하면서 핵의 포기를 강요했다. 이는 날강도 같은 행동이라고 비방했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장기전을 선포한 셈이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라고 천명했다. 김정은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 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육성 연설을 통해 북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일이 있다.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2018년 4월에는 중앙위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포하고, 신경제 발전 집중노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분야 공약과 노선은 사실상 실패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미국과 내각, 일부 경제일꾼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준비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정서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유예해왔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김정은은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강조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부각하면서 압박한 것이다. 김정은은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수위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여하에 따라 수위를 조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결정서에서 드러난 전략노선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전망해본다면, 일단 김정은은 정면 돌파전을 지속 강조하면서, 내부 단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른바 모라토리엄 해제, 즉,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될 경우 유일한 원군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고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도 불가피하며, 트럼프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토록 하는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충격적 실제 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운운하면서 강력한 발언을 내뱉었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딜레마로 고민할 것 같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김정은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마저 등을 돌린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대선에 장애를 조성하여 실패하도록 만든다면 김정은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보다 북한에 더 간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선 내부단속, 중·러와의 연대 강화, 미국과의 관계

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면서 혹시 미국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 온다면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군사적 도발은 한미연합연습 등의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운신의 폭 확보는 기대 난망

이번 결정서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실제 남북정상회담 3회, 4.27/9.19선언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그의 대남태도가 돌변했다.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문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을 중단하고 민족의 이익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했다.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그런 북한이 이번 결정서에서 우리에게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직접 강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아무리 원해도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이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남측을 향해 대화의 문을 닫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초조감을 유발하고 남측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의 편에서 떠나 민족의 관점에서 나서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새해 벽두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미북 협상 교착국면을 안타깝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미북 대화의 재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남북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 갈 것을 강조했다. 평화경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도 재확인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다시는 남측과 다시는 마주 앉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 부탁을 받고 돌아왔다는 발표에 대해 김계관의 담화를 통해 주재님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조롱하며 비방하기도 했다. 이런 북한의 언동을 볼 때 금년에도 북한은 남북교류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비방도 자제한 것으로 보아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측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발전되고 신뢰구축 등을 의미하지만 북한은 남측의 금전적 지원만 확보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화와 교류의 확대는 체제와 정권의 붕괴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남북관계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 에 대한 깊은 우려

북한 핵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핵·

미사일 역량은 강화되었다. 지난해 북한은 13차례나 신형무기 4종세트와 SLBM을 발사했다. 북한 비핵화 축진을 명분으로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연합억제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한미간 공조의 균열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의 부분적 면제를 강조한다.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입장과 충돌한다. 북한 핵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고 우리가 먼저 나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협상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거기에는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문제로 변질했다. 지난 연말 우리 정부의 조건부 중단유예 결정으로 가까스로 위기는 모면했지만, 한일갈등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과 중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다. 지난해 이런 틈을 타고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동해에서 연합비행을 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중국은 남한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자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이다. 소위 쌍중단, 쌍궤병행도 그러한 속내가 담겨져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제목 : 북한의 변화, 정치지도자의 바른 판단, 대한민국 안보



〈한미연합훈련장면 모습〉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제목을 정리해 본다. 첫째, 북한선교의 문이 열리려면 북한 정권이 변화되어야 한다. 김씨 세습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한 복음 전파는 어렵다. 주님께서 지금의 정권을 언제까지 두실지 알 수 없다. 하루빨리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의 바른 판단과 행동을 위해서다. 오로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매여 실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않고) 그릇된 정책을 펼친다면 불행한 일이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하다. 김정은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문대통령은 자기세력의 재집권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 핵·미사일에 인질이 되어있다. 김정은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위협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연합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결과와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오 일 환 (송실대 초빙교수,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매년 그해의 북한의 행태 전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월 1일에 발표되는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를 참고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난해 말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려 나흘간 진행되었던 ‘조선로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을 1월 1일자 로동신문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기사로 게재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굳이 김정은의 2020년 신년사를 따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여 로동신문에 보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가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2020년 북한 전망은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망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12월 28일 첫날 전원회의에서 “전진 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사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위원장〉

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가 언급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 가운데 대미 차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합동군사훈련’과 ‘첨단 전쟁무기의 남조선 반입’ 등으로 인한 북한의 ‘자주권’과 ‘안전’의 위협이 해당된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제시했다. 이 ‘정면돌파노선’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비롯하여, 북미 교착상태, 대북 제재 장기화 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서 김정은은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 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 데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무기체계들은 경량화·고도화된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략무기체계를 구비해온 마당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탓인지, 김정은은 자주권과 안보위협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장애요소라고 규정하면서, 2020년 올해의 투쟁구호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阻礙)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를 제시하였다. 이 구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초래된 경제위기는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고, 군사·외교적 위협에 대해서는 ‘전략무기개발’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김정은은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끝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문맥상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협상을 주저할 경우에는 핵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엄포’를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속셈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없이는 당면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1일, 주용철 북한 제네바 주재 대표부 참사관이 제네바 유엔 주재 군축회담에서 행한 발언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는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한도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새로운 길’을 추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그런 적대적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주용철의 발언 역시 미국의 협상 전략에 ‘새로운 길’로 응수하면서 내심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의 약화 내지 해제에 초점을 맞춘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란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며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전략을 무력화하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방도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은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위기로 인한 체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이 현재와 미래의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빅딜로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조건 하에서 핵동결 수준의 협상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북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연말의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미국 당국자들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발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월 7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거론된 비핵화 약속에 어떻게 이를 수 있을지 대화할 것이라는 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1월 12일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과 접촉해왔으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했으면 한다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다음날 13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김정은이 그 약속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북미 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1월 19일자 아사히신문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일부 견해에 대하여 “지금은 2017년 당시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는 상황이 달라 미북 당국자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하며 김정은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기대하는 협상은 경계하고 있는 국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선 진영에서는 2020년의 재선 가도에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불확실한 협상으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북한의 정면돌파 식 ‘충격요법’으로 긴장 국면이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전에서 보수층 결집의 이익을 수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다급하게 협상에 임할 태세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2020년 금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내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강경 협상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선 국면의 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잠정적 합의를 추구할 개연성도 있겠으나, 상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전후하여 북한이 충격요법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프 대통령으로서는 금년 말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는 구태여 대북 협상에 매일 이유가 약화되어 경제적·군사적 대북 강경책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현재의 북미대화가 ‘시간벌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의 장기화가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국면을 벗어나기 위하여 모종의 군사적 도발을 의미하는 ‘충격요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외교·군사 분야에서 공세적 조치로서 핵·미사일(ICBM) 동결 선언에 구매받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면서 전략무기개발 사업의 가속화 방침

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31일자 로동신문은, 전날 전원회의와 관련하여, 자주권 및 안전보장을 위해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조치를 준비하는 데 대한 해결방향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가지고 대북 재재를 실질적으로 한번에 제거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변 전체를 들고 나왔지만 비공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을 거부했다.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전과 동북아지역의 패권 유지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며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로드맵을 먼저 합의하자는 빅딜을 주장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또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핵물질과 핵무기를 없애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나 미사일까지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핵군축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에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비핵화이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핵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경우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평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지역의 패권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복잡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패권경쟁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세력 약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미국은 북핵을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을 전개하면서 중국 포위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국의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 비핵화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상 그 해결이 어려운 일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동북아 패권경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근원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진정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북한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을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 이후 북한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미 2015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보유를 선언하였다. 당시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이 4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점에서 북한이 다량의 핵을 더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이에 수반하여 상당 수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전제하에서 철저하게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은 북미관계 악화시기에 오히려 시간 끌기를 하며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틈을 타 이 시기를 핵탄두를 늘리는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으로 삼을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은닉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북한이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핵 폐기에 그칠 경우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가운데 일부라 할지도 그것은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셋째, 북한이 부분 핵 폐기로 보상만 받고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나쁜 거래(bad deal)’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핵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등 미국의 안보만을 위한 협상으로 끝날 경우 한국에 치명적인 단·중거리 미사일로 인한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만약 북한 비핵화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




〈19년 6월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는 김정은 위원장〉

단 핵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부 핵만이라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의 바탕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초가 되는 북한 비핵화여야 한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빌미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며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미군철수를 염두에 둔 한미동맹의 해체 또는 약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것임에 불 보듯 뻔하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은 통일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여전히 필수적이다.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

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요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제재와 병행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의 기초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일치돼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에 호응하지 않는 남북관계 우선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이후의 남북관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말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북한의 국가방향

최 경 희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대표)

한반도의 국제환경과 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국가주의적 성격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국가주의적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일본의 아베 정권은 ‘신시대의 막이 열리다’라는 새로운 시대적 슬로건을 내놓았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이념보다 국가주의를 최우선의 가치

로 내걸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맞게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북한이 목표하는 국가주의의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주의는 자기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에 초우월성을 갖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와 경향을 말한다.

2018년 한국의 역할로 북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집권 이후 대외활동이 전무했던 김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위원장〉

은은 국제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어서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대외적 확장성으로 지속되는 듯했으나 그 실효성은 1년에 그쳤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굴욕적인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자고 언급한 이후 1월 8일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이라는 기사에서 이를 공식화했다.¹ 국가주의를 이념의 기치로 내건 북한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무려 4일 간 개최하여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차원의 성격도 있지만 새로운 2020년 대를 향한 중장기 전략구축의 의미도 있다. 2019년의 정치행보에서 그 체계는 이미 예견돼 왔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에 입각한 시스템 재정비가 일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승리가 선포된 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 통치담론은 5월부터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일반화되었다.² 특히 김정은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자고 약속한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는 김정은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무대장치가 연출되었고 신년사 직후에 조선중앙TV에서는 새로 나온 가요 ‘우리의 국기’를 방영하며 대내외적으로 국가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성격을 지닌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공화국의 전략적 지위 확보³, ②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제고, ③업적에 대한 숭고한 사상감정을 고취이다.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국가정치체제가 편파없이 계승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전략자산을 보유한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데 북한의 목표관리는 그동안 대남태도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정상회담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으나 당시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북한의 국가운영 시간표에는 남한의 정권교체가 2018년 2월로 되어 있었으므로 북한은 남한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에 서둘러 미사일발사, 핵실험을 강행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평화공세로 전환했다. 따라서

1 북한은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가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라고 정의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1.8

2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인민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강국의 실체를 보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하고 우월하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마음

속에 소중이 간직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근본 핵이다.”(노동당기관지『근로자』2018년 5월호, 편집국논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국가를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강국, 문명강국으로 만드는 거창한 국가건설 목표”(『철학·사회정치학연구』2018년 2호(5~8월)).

3 “핵을 보유한 자주적인 핵강국으로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정치무대에서 전략적 문제들을 주도해나가는 확고한 지위를 말한다”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 『근로자』 2017년 제12호, p.21.

북한의 국가주의적 목표는 핵·미사일 전략자산이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이며 핵심수단이다.

경제시스템 변화 시도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다만 경제정책에서의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감지된다. 2019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던 수직적 분업체계를 표현하는 헌법인 제13조에서 ‘모든 사업에서 우(위)가 아래를 도와주고’라는 문구와 ‘청산리정신, 청산리 방법’을 삭제하고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헌법 제33조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라는 문구와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를 추가하여 자율성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대외적 경제활동의 법적 근거로는 과거 헌법 제36조에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를 추가했는데, 이는 북한이 처해있는 저신용과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부분이며 대외적 경제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0년을 시작으로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여기서 기본은 경제전선이라고 규정했다.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경제분야의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김



〈북한의 경제강국건설 선전화〉

정은이 현재 북한의 경제실태에 대해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회복되지 않고 국가의 집행력과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역할과 경제전반이 ‘활성화 및 성장단계’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의 안정화를 전망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0대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이래 처음으로 부활한 것으로 주목된다.⁴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첫 번째가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공화국이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제시스템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는 병진노선의 변화나 부활보다는 핵무력건설의 지속성을 유지,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경제부분의 변화발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정은식 문화권력의 확대재생산

북한사회에서 혈통은 하나의 계급체계를 의미한다. 수령, 당, 대중의 구조를 이루는 정치적

제에서 수령 개인을 상징하는 혈통은 ‘백두혈통’으로, 수령의 업적을 상징하는 전통은 ‘혁명전통’분류된다. 김정은은 2012년 시간과 업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권을 승계했다. 세습권력은 이양 받았으나 권위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은의 과제는 권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20대에 등장한 김정은이 시도한 첫 권위체계 구축은 전통적 권위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이 직접 넘겨받은 ‘최고사령관직’을 승계과정의 첫 작업으로 시행했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선포하여 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했다. 이러한 전통적 권위체계는 혈통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합법적 권위체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과 당규약, 헌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 권위체계를 구축했다. 물론 세습체제는 정치사상적 논리로 제도화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인민이 수용하고 순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설득이 필요하다. 인민 스스로가 복종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년 7차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전통적 권위를 백두혈통으로 정의하고 대중화하는 데 집중했다. 백두혈통에는 혈통과 전통이 내재되어 있는 정통성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모습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조부의 정치행보를 답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일성에 의한 조국의 해방, 국가창건,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이 모두 함축되어 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0월 김정은은 동생 김여정 등 수행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등정했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말에는 혈통을 상징하는 금장도가 특별히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12월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 등 수행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등정했는데 김정은의 말에만 금장도가 장식되었다. 금장도를 장식 한 백마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혈통의 순결성을 의미하고 금장도를 장식한 군마는 김정은을 상징하는 동시에 군마을 탄 리설주위의 수행원들은 전사의 지위를 의미한 것이다. 가장 추운 엄동설한에 49일만에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통성, 김정은의 혁명전통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동안 선대의 계승성을 강조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업적으로 혁명전통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정통성은 위에서 구축하는 문제가 아닌 아래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2019년 12월 초에는 백두산이 소재한 삼지연군을 시급으로 승격하고 거리이름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해 백두산 밀영을 상징하는 밀영거리, 청봉거리 등으로 개정했다. 이는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리설주와 대화의 모습을 방영하여 김일성과 김정숙의 대화 사진으로 연상시켰고 하나의 가정 모델로 사회의 일반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사회의 전반적 범위에서 ‘백두산 대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북한의 칼바람의 경험으로 정신적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일환이다. 결집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고 이는 정통성을 얼마나 강화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김정은의 카



〈조선중앙통신은 19년 10월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현송월 부부장(오른쪽부터) 등이 말을 타고 있다.〉

리스마적 권위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 전통적 권위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권력의 합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점차 2013년부터 카리스마적 권위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천재성을 핵과 미사일개발에서 찾고 미국과 맞서는 담대함과 여성들의 머리핀까지 배려하는 세심함, 유치원아이들을 품고 있는 부드러움 등이 카리스마 권위체계 구축에 활용되었다.


그동안 구축했던 신화적 스토리를 기초로 김정은의 카리스마적 권위구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백두산에 등정한 김정은의 군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 소백수 흐르는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 등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가시적인 정치권력뿐 아니라 정통성의 재구축을 통해 문화권력을 확대재생산하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망

이상과 같이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운 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의 주변국들이 국가주의적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국가주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1960~70년대에 ‘양탄일성’을 이루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체제에 편입되었다.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G2로 성장했다. 북한도 이와 같은 선례를 따르려고 하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국가발전전략에 차질을 빚으며 경제발전과 대외활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국가주의 중심에는 ‘백두혈통’ 신화가 문화권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문화권력이 국가주의와 만나면 국수주의적 형태를 낳게 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김정은의 대외적 불신은 깊어졌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신만의 정통성

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경제체제,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환경분야의 위기관리체계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한 강력대응을 필요로 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과거 남한정부와 국민을 분리하던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를 분리하고 진보에서 다시 여당과 청와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이다. 외부적 상황에 밀려 선택한 이번 결정은 대내적으로는 결집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겠으나 대외적 확장성과 다양성을 기대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11)

마리아

루디아는 신입반으로부터 전방(轉房)되어 우리 감방으로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말재주가 상당해서 중국에서 봤던 영화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등을 아주 생동감있고 재미있게 잘 전달했다. 감방의 다른 사람들도 루디아가 말하고 있으면 어느덧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바뀌고 설날이 되었다. 감방에서 설날이면 죄수들끼리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다. 평상시에는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꼭 인사를 하였다. 언제 살아나가는지 혹은 언제 죽는지 기약이 없는 그 곳에서 서로 동병상련의 처지를 다독였다. “우리 꼭 살아나가자. 이겨내자!”라고 하며 그날만큼은 미워도 밟지 않았다.

그 와중에 나는 루디아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다가갔다. 그 분은 새삼스러운 웃음으로 나에게 인사를 하였다. 나는 그 분 귀에 바짝 대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속삭였다. 선생님은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분께 어느 날 담요 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호흡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주기도문 아는가?” “안다.” “사도신경 아는가?” “안다.” 이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서로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었다.

루디아와 친해지면서 좀 더 자세한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루디아는 내가 탈북하기 훨씬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여 중국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중국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들을 엄마처럼 안아주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보석을 이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팔기도 했고, 천을 사서 밤새 성극용 의상을 손수 만들기도 했다. 성극 안무나 대사도 직접 짜서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도 했다. 순회 공연을 하려고 지역 이동을 할 때 길에 곳곳에 위치한 검문소와 공안의 감시를 피해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는 간증이 귀했다.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라는 권유도 받을 만큼 안팎으로 신뢰받는 성도였다. 이처럼 중국 땅에서 탈북자와 고향 땅을 품으며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다.

그러던 어느날, 루디아는 성경 공부 모임 도중에 공안에 잡히게 되어 복송되었다. 변방대에서 대기하던 중 그동안 양딸처럼 보살피던 중국 여자가 찾아와 돈을 주고 빼내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루디아는 “나는 아버지 부름 받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거

절하였다고 한다. 이 곳 감옥으로 스스로 끌려 온 것이다. 루디아는 또 그런 와중에도 중국 감옥에서부터 같이 잡혀온 어린 탈북 여성을 양팔삼아 돌보았다. 자기는 밥을 못 먹을지언정 그 아이에게는 엄마처럼 밥도 챙겨주고 시시때때로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다 보니 그 아이도 루디아와 함께 교화소까지 이송되었다.

선생님과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열악한 곳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자고 말하며 격려했다. 이후로도 교제하며 서로에게 힘과 응원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지옥 끝에 있는 것만 같은 감옥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루디아의 왼쪽 가슴에 뽀루지가 나기 시작했다.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방치된 그 뽀루지는 굼고 굼아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되고 말았다. 결국 루디아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래도 함께 있으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 교화소 내 진료소에 같이 가주었다. 교화소에는 종종 외과적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맹장이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식사에 돌이 절반 이상 들어있으니 맹장이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추운 겨울 날 실내 맨 끝에 히터 하나 놔두고 부분마취를 하며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칼이 너무 무디어서 한번에 살을 배지 못했다.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그어대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몸서리쳐질만큼 끔찍했다. 그땀 칼로 수술이랍시고 한다는 것이 한심했

다. 마취도 충분치 않고 단번에 조치가 되지도 않으니 너무나 아팠을 태지만 루디아는 입을 꽉 다물고 주먹을 꽉 쥐고 신음소리를 요만큼도 내지 않고 잘 참았다. 옆에 지켜보던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은 같은 여자라도 그분의 강인함에 감동이 된다고 참 특별한 사람같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수술하고 나서도 항생제는 커녕 제대로 된 사후 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그 때문에 수술 자국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살이 뒤집히고 노랗게 농이 생겼다. 다시 한 번 교도소 내 진료소로 가서 이번에는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시커먼 살을 가위로 잘라내었다. 그 때도 루디아는 두 손을 꽉 쥐고 신음 소리 하나 없이 견뎌내었다. 루디아의 강인한 정신력에 간호사들도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 감방으로 돌아와서 루디아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작은 쇠그릇에 소금물을 받아서 간간이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루디아는 며칠 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감방 안에만 있었다.

루디아가 겨우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 함께 대열을 맞추러 나온 어느 날이었다. 우리 죄수들은 항상 군대와 같이 팔을 앞뒤로 흔들며 대열을 맞추어 걷도록 지시를 받았다. 루디아는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배열을 맞추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그 모습을 본 반장이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난데없이 루디아를 걷어찼다. 그날뿐 아니라 반장은 계속해서 허약자인 루디아에게 난데없는 폭력을 반복해서 자행했지만 죄수된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

다. 감방에 들어와서 나는 매번 루디아를 돌보았고 루디아는 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에 있냐... 기도가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루디아를 그렇게 괴롭히던 반장이 돌연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 루디아는 점차 회복하였다.

어느날 루디아와 이야기하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는 찬양 이야기가 나왔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이 가사를 조금 바꾸어 부르다가 어느날 부턴가 일할 때 소리 내며 노동요처럼 불렀다. 가사도 멜로디도 보통의 혁명적인 노래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힘찬 노래이다 보니 마치 주님이 이 때를 위해 예비하신 노래같았다. 다행히 이 찬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가사를 약간 고쳐서 남 신경쓰지 않고 일할 때 불렀다.

하루는 일을 추가로 더 하면 부식을 더 준다고 해서 그거라도 먹겠다고 일터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너무 힘에 부쳐 도저히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머리에 그 찬양이 떠올랐다. 나는 누가 듣던지 말든지 고래고래 찬양을 소리를 질러가며 불렀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찬양을 부르니 정말 몸에 힘이 솟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도 생겼다. 이 찬양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몸소 체험되면서 기도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은 김보배(가명)라는 신입이 한 명 들어왔다.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름표를 보고나서는 왠지 내가 아는 그 얼굴이 아른거렸다. 가만 보니 중국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언니였다! 교화소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속을 몇 차례 비운 모양인지 뼈에 살이 간신히 붙어있어 처음부터 허약자로 분류되었다.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짐승 같은 곳에 둘 다 먹히다니...

보배언니는 몸이 약해서 매사에 도움이 필요했다. 친했던 나도 신경을 충분히 못 썼는데 감사하게도 루디아가 항상 보배언니를 챙겨주었다. 루디아의 동생이 가끔씩 교화소에 면회를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때마다 루디아는 그 받은 물건을 온 감방에 나누어주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특별히 보배를 챙기곤 했다.

하지만 루디아의 친절과 인품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기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루디아가 중국 감옥에서부터 딸처럼 챙겨주던 젊은 처자는 어느 순간부터 루디아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아예 등을 돌리고 말도 섞지 않았다. 루디아는 참 슬퍼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약육강식의 세계를 실감했다.

하루는 아침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소리에 잠이 깼다. “내가 들었으니까 봐라. 지금 루디아 무슨 말 하나 봐라.” 하면서 반대편의 루디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루디아가 저쪽 벽에 기대서 어떤 자매에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속닥속닥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들리고 시내산이라는 단어도 들렸다. 감방 사람들은 생전 예수님이니 시내산이니, 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기에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몇몇 죄수는 루디아가 요즘 수상한 말을 하고 있다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루디아가 위험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중에 조용히 내가 루디아에게 가서 주의를 주었다. “그만하라우. 목숨이 두 개인 줄 아느냐? 왜 그걸 밖으로 표현을 하느냐.” 조용히 속으로 기도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밖으로 표현하고 전도해서 괜한 위험을 초래하냐며 속상한 마음에 화도 내었다. 교화소 내에는 삼인일체 시스템이 있어서 죄수 세 명을 그룹으로 지어 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네 삼인일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다. 항상 그렇게 감시받는 곳이 바로 교화소인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루디아의 행동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루디아를 놓고 쑥덕거릴 때마다 괜시리 내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언제 한 번은 루디아와 함께 출소하면 무엇

을 할까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나는 루디아에게 이제 몇 개월이면 출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소되면 나가서 같이 중국에 가자는 말을 했다. 조국이라고 품에 안겼는데 나를 이렇게 철창 속에 처넣은 이 곳을 나는 꼭 떠날 것이라고 한탄 섞인 푸념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그래. 우리 같이 중국 가자.”라고 할테지만 루디아는 달랐다. 단번에 “너는 가라. 나는 아버지 부르심 받고 이 땅에 왔으니까 여기에 남겠다.”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봐주실 것이라고, 자신은 돈이 있어도 여기 계속 남아있겠다며 말이다. 그 당시 내 상식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루디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믿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북한이 복음의 불모지이고 성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끔찍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그 땅에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난 알고 있다.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질문할 때 나는 지금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루디아 선생의 생생한 모습을 떠올린다. (계속)

+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발표로 신년사 대체… ‘새로운 길’은 ‘정면돌파전’

이번 북한의 2020년 신년사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되었다. 금번 보고에서는 북한은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새로운 길'로 제시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비핵화 차원에서 해온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예고했지만,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밝혀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등 북미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미국이 한미 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며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북한의 실정상 새로운 ICBM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대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경제분야에서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정하고 경제발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모습〉

전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역센 혁명 신념”이라며 어려워도 자력갱생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며 경제제재해제와 핵포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에서는 그 외에도 인사·조직 문제도 다뤘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남쪽 정부나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 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참고: 연합뉴스, 1월 1일)

+ 文대통령 '비핵화 낙관론'...'남북협력→비핵화추동' 원칙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2020년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약 25분가량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특별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 교착 속에 남북관계가 지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스포츠교류, 철도·도로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제시했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뜻도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신년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두고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며 형성해 온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낙관론으로 분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대선 국면 진입 등 상황변화로 대화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미 대화의 교착과 맞물려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에 필요하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한편 현재는 제재로 인해 막혀있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 각종 뉴스 종합)

+ 미국, 북한에 대화 재개 촉구… 중국 역할 강조

북한이 전원회의 보도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실망과 강경한 입장을 보인데 대해 우호적 제스처 속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친서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전달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마친 후 귀국 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며 그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음 좋겠다고 당부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1월 10일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과의 보도에서 북한 측에 지난해 10월초 마지막으로 이뤄진 협상을 스톱 홀름에서 계속하고 싶다고 알렸다는 언급을 통해 북미 협상 재개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언급한 '성탄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인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13일(현지시간) 한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시 제재 완화는 물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핵무기 없이도 김위원장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월 15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는 더 밝고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월 13일 같은 행사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이 끼어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끝난 후 중국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아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온 중국에 북한의 협상복귀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참고: 각종 보도 자료 종합)

+ 정부, 북 개별 관광 추진 시사



정부가 한미공조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문제와 관련해 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1월 20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국내에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 금강산·개성 방문과 제3국을 경유한 관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며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대량 현금) 유입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어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 해리스 대사는 1월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참고: 각 언론 보도 종합)

+ 북한 우한 폐렴 주의보…중국 발병 주시하며 국경 통제



북한이 중국 우한(武漢)을 진원지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산에 긴장하며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중국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을 전하는 한편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월 22일 '중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급속히 전파'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내 발병 현황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에서 최근 신형코로나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피해가 나고 있다"며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해당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야생동물 관리, 공항과 항만 이용객에 대한

체온 검사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홈페이지에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1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일시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다른 관광업체 고려투어(Koryo Tours)도 홈페이지에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2일부터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사실을 북한 내 파트너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국제여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예방조치로 1월 22일부터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중국 여행사들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연합뉴스, 1월 22일)

+ “북, 19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국”



었다.

한편 북한은 19년 연속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재차 선정됐다. 북한은 박해 지수 100점 만점에 94점을 기록하며 19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북한의 대외적 외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에서 2020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2020 World Watch List)를 발표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2020년 전반적인 기독교 박해 추세는 19년과 같이 73개 국가에서 극심한 또는 높은 수준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해 순위 50위권 내 피해 기독교인의 숫자만도 약 2억 6천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계 기독교인 8명 중 1명꼴로 심각한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지방을 중심으로 이슬람 무장세력의 준동으로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급증했으며, 남부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슬람 과격주의 확산으로 스리랑카 테러 등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테러 활동이 증가했다. 중국과 인도 등 상당한 기독교인구를 가진 국가들의 기독교 박해 수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안면인식 등 각종 IT 생체인식 기술이 기독교 박해에 악용되는 경향 역시 보고되

고 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교 탄압이 여전히 심각하며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북한의 뒤를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이 올해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명단에 올랐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이러한 박해 국가들을 정리한 기독교 박해지도 등을 발간하여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교회나 성도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강연 및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료나 강의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나 전화(02-596-317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 '충성의 외화벌이'라 불리는 북한노동자

저자: 강동완

출판사: 너나들이

발행일: 2019년 12월 19일

가격: 29,000원

해외에서 북한사람을 만나기란 보통은 쉽지 않다. 당국의 엄격한 통제 속에 해외로의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의 특성상 일부 무역일꾼이나 외교관 등을 제외하면 탈북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해외를 방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 일부 지역에서는 흔하게 북한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고 일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여행자가 아닌 노동자로 파견 나온 사람들이다.

북한은 자국 노동자들을 수만명 이상 해외로 파견해왔다.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 파견은

제재 국면에서 더욱 강화되어 전세계 십만여명 규모의 노동자 파견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강화로 노동자 파견도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의 일환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실태가 인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북한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 사람이지만 타국에서도 여전한 통제와 감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선교사와 사역자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아무래도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강동완 교수의 저서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는 이러한 가깝고도 먼 북한노동자들에 대해 장기간 관찰하고 접촉한 경험을 담은 새로운 시도의 책이다.

책 전반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파견한 노동자들의 대략적인 실태를 서술했다.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 사진도 함께 보여준다. 열악한 작업 환경, 과도한 상납금(계획금), 또 타국에서의 괘시와 부당한 대우 등 이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단한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양한 사진 속에 관광지나 유명 레스토랑 등의 틈 사이로 공사현장에서의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들을 담은 사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공간에 함께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가지지 못했던 그들의 얼굴이 녹아있다. 남한의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할텐데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고 지나쳐왔다는 사실이 못내 아이러니 하게 느껴졌다.

책의 후반부는 저자가 직접 만나고 교제했던 북한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교제의 기록을 담았다. 여러 경로로, 우연한 듯이 만난 그 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무엇보다 같은 인간으로써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을 위해 고국에서 온 사진과 편지를 읽고 또 보면서 수년간 외로이 러시아의 건설현장을 전전하는 북한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네 아버지의 부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계획금을 바치고 가족들에게 보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마다않는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북한 밖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에 눈을 뜬 그네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저자가 교제했던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회의

감을 느끼고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여전히 당과 조국에 충성하는 사람, 모든 것을 미국 탓 하는 사람 등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인터넷을 경험하고 남한의 매체를 즐겨 보는 등 러시아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리고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놀라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대북제재로 그동안 북한노동자들을 받아들였던 국가는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그 기한도 19년12월 22일까지로 정해져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가 이행되지는 못한듯하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 중 약 2만 3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¹ 북한은 여전히 노동자를 최대한 해외로 파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여전히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제제재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외화 창구로서의 북한 노동자가 아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힘써 살아보고자 애쓰는 동포이자 한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서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는 바로 그 북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감동이 담긴 책으로서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해본다.

1 자유아시아방송, “북 노동자 송환 시한 경과…각국 이행 수준 ‘제각각’”, 2019.12.26.

북한 기도 제목

1. 올 한 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한반도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유사시에 전략 무기 도발 등을 자행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미대화의 향후 향방도 불투명합니다. 한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한 해이기에 더욱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정치나 외교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소망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평화의 일을 이루시도록 함께 두 손을 모읍시다.
2. 한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에도 공식적인 대북 지원 사역 및 민간 차원의 접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북한선교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받아드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에 대한 비전을 더 깊이 품고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북한 선교 사역들에 더 많은 교회들이 관심과 참여, 동역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하며 중단 및 완화될 기미가 없는 현실 앞에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무고한 박해가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4.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북한 선교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북한과 주변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교 활동에도 제약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본 선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며 특별히 고난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헌신된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

십시오. 또한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역이 안전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겨울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극심합니다. 거기에 물자 부족으로 추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단순히 육적인 생존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특별히 내지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각종 방한용품 및 생필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필요한 물품이 어떤 사고나 유출 없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의 모든 과정과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달되는 사랑의 온정이 담긴 물품들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사랑의 섬김 속에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6.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 함께 한 라디오 방송 사역 협력과 함께 탈북 성도들이 참여하는 자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대북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앙활동에 극심한 제약이 있는 그 땅에 라디오는 한줄기 빛과 같은 주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보급과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 잘 제작되고 송출되도록, 그리고 항상 깨끗한 음질로 성도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2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World Watch List 2020

TOP 50 COUNTRIES WHERE CHRISTIANS
FACE THE MOST EXTREME PERSEC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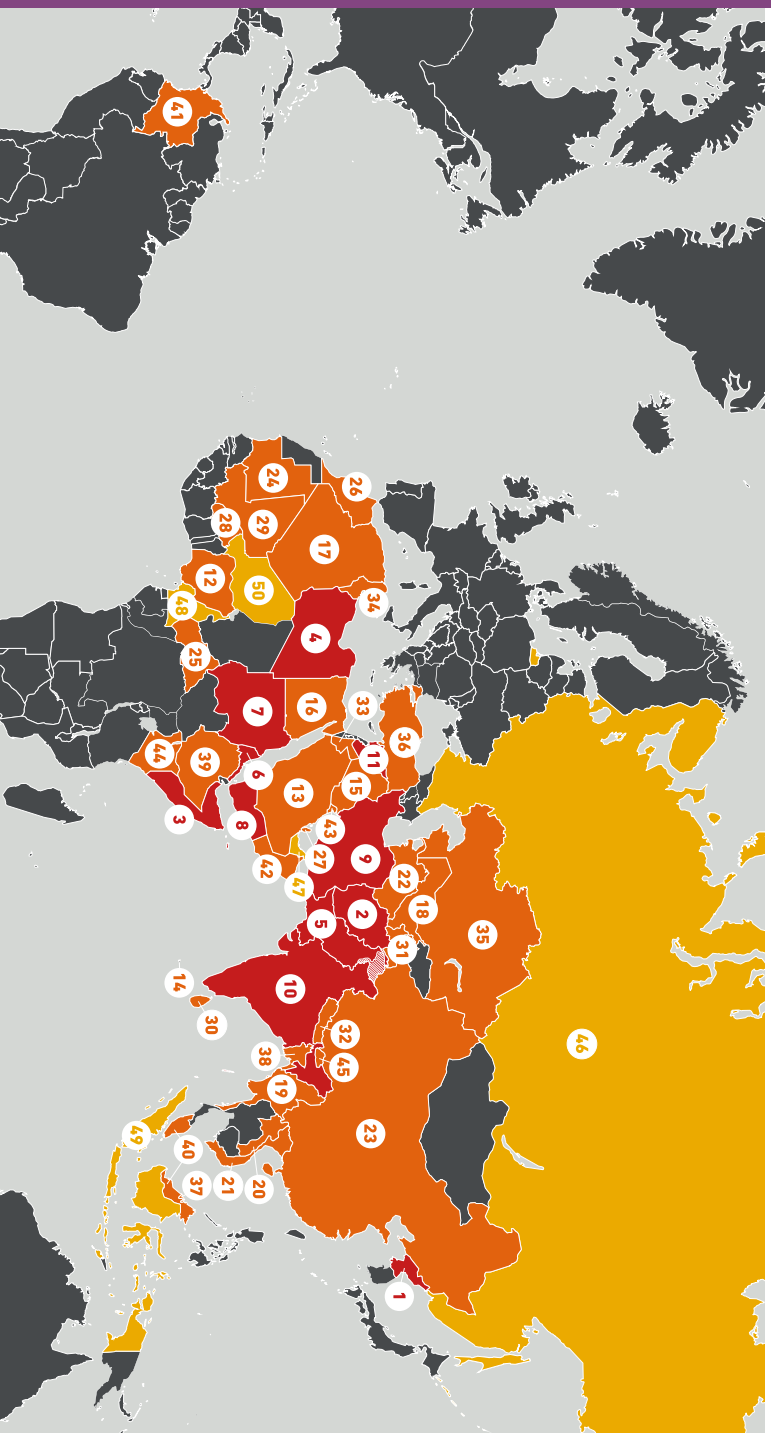
- | | |
|-----------------------------|-------------------------|
| 1 North Korea | 26 Morocco |
| 2 Afghanistan | 27 Qatar |
| 3 Somalia | 28 Burkina Faso |
| 4 Libya | 29 Mali |
| 5 Pakistan | 30 Sri Lanka |
| 6 Eritrea | 31 Tajikistan |
| 7 Sudan | 32 Nepal |
| 8 Yemen | 33 Jordan |
| 9 Iran | 34 Tunisia |
| 10 India | 35 Kazakhstan |
| 11 Syria | 36 Turkey |
| 12 Nigeria | 37 Brunei |
| 13 Saudi Arabia | 38 Bangladesh |
| 14 Maldives | 39 Ethiopia |
| 15 Iraq | 40 Malaysia |
| 16 Egypt | 41 Colombia |
| 17 Algeria | 42 Oman |
| 18 Uzbekistan | 43 Kuwait |
| 19 Myanmar | 44 Kenya |
| 20 Laos | 45 Bhutan |
| 21 Vietnam | 46 Russian Federation |
| 22 Turkmenistan | 47 United Arab Emirates |
| 23 China | 48 Cameroon |
| 24 Mauritania | 49 Indonesia |
| 25 Central African Republic | 50 Niger |

Levels of persecution

● Extreme ● Very high ● High

The Open Doors World Watch List is a unique, comprehensive and reliable ranking of the 50 countries where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s most extreme. It's compiled by Open Doors analysts using real-world data from experts on the ground in 150 countries. Persecution in each country is recorded by Open Doors using a points system, which not only tracks violence, but also how much freedom Christians have to practise their faith in their private, family, community, national and church life.

Open Doors'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are independently audi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All data relates to the period 1 November 2018 to 31 October 2019.



Chrisanthi lost her husband, Ramesh, when he prevented a suicide bomber from making his way into Zion Church in Batticaloa, Sri Lanka, on Easter Sunday 2019.

"We have not stopped our family prayer time," Chrisanthi says. "Even after the incident, we still continued our family prayer time the next night. I teach my children to read Scriptures every night. I tell them that they're really strong."

"I cannot forget such a loving husband. There's brokenness within me, but God loves the broken-hearted. With my brokenness, I praise Him."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prayed with Chrisanthi and others in their distress, and sent much-needed support to the survivors of the bombings.

"Thank you so much, we felt so much love! We see that throughout the world, God is sending us support. Your presence is telling me that we are not orphans."



"My friends, by the power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love that comes from the Holy Spirit, I beg you to pray sincerely with me and for me."

ROMANS 15:30